

에코세대의 취업변화와 자살생각

라채린^{1,2} · 이현경¹

¹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소, ²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Employment Transitions and Suicide Ideation among Echo Generation

Chaelin Karen Ra^{1,2}, Hyunkyung Lee¹

¹Department of Mental Health Research, Seoul National Hospital, Seoul; ²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transitions and suicide ideation among the echo generation.

Methods: This study used survey data from the 2008 and 2010 Seoul Welfare Panel Study (Wave I, II). The sample population was restricted to the echo generation aged between 18 and 31, and the total of 882 sampl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dataset. Employment transition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The groups were defined as 'employed-employed', 'unemployed-employed', 'employed-unemployed', and 'unemployed-unemployed'. We used logistic regression to find out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transitions and suicide ideation among the echo generation.

Results: 'Employed-unemployed' and 'unemployed-unemployed' groups were likely to have an association with depression (odds ratio [OR], 1.49; 95% confidence interval [CI], 1.46 to 1.51; OR, 1.57; 95% CI, 1.56 to 1.59) accordingly. 'Unemployed-unemployed' group also wa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OR, 1.39; 95% CI, 1.36 to 1.42). Interestingly, 'unemployed-employed' group showed a strong association with suicide ideation among the echo generation (OR, 3.85; 95% CI, 3.75 to 3.95).

Conclusion: Experience in unemployment increases the risk of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Moreover, the precarious job also increases the risk of suicide ideation.

Keywords: Employment; Young Adults; Echo generation; Depression; Suicide ideation

서론

에코(echo)세대란 베이비붐세대가 낳은 자녀세대로 정의되며, 대개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출생한 자녀들을 일컫는다[1].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에코세대는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들의 연령은 만 18-31세로 오늘날의 청년세대에 해당한다. 에코세대는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났다. 이들은 대학진학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75.6%일 정도로 교육수준이 높으며[1] 조기 어학연수 및 해외유학 등의 국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기존의 세대보다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에코세대의 직업 대 분류별 취업인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39만 명(30.0%)으로 가장 많고, 사무종사자 112만 명(24.1%), 판매종사자 57만 명(12.2%) 순이다[1].

그러나 에코세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회진입기를 맞이하고 있다. 에코세대를 가리켜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삼포세대'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며 구직난과 경제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처한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2]. 이구백(20대 90%는 백수), 메뚜기 인턴(인턴만 옮겨 다니는 젊은 세대), 취직(취업 대신 시집), 장미족(장기간 미취업자) 등 자조적인 신조어가 넘쳐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 비율이 75.6%인 에코세대가 고용

Correspondence to: Hyunkyung Lee

Seoul National Hospital, Department of Mental Health Research, 398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143-711, Korea

Tel: +82-2-2204-0294, Fax: +82-2-2204-0280, E-mail: lhk9127@korea.kr

*본 연구는 2013년도 국립서울병원 내부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Received: November 6, 2013 / Accepted after revision: December 27, 2013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이 없는 성장 속에서 겪고 있는 실업의 정신적인 고통은 엄청나다. 실제로 이 집단은 외환위기에서 매우 높은 실업률을 경험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이들의 실업률이 경제 전체의 실업률이나 다른 집단들의 실업률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대부분 에코세대였던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지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었다[3]. 한편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은 처음 에코세대인 1979년생들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맥 상통한다[4].

현재의 청년 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 3%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성인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5,6]. 게다가 지금의 청년세대인 에코세대는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집단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수치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청년층 실업률의 수치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인 실업보다 심각한 문제이다[6]. 청년실업은 이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크게 해치고[6,7]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의 전생애발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심리적인 장애, 대인관계 붕괴 및 자살 등의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6,9].

한편 최근 발표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한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의 자살률은 1999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10]. 그러나 특히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의 증가 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11],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이나 노인의 자살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청년의 자살 관련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언뜻 보면 에코세대가 속한 10대, 20대 그리고 30대의 자살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각 연령 집단별 사망원인으로 보면 이 연령집단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대의 경우 2위인 운수사고와의 격차도 매우 커(각각 24.4명, 9명) 이들 집단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12].

한 취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조사에서 청년구직자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중 64.2%는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13]. 또 최근 Song 등[14]의 연구에서는 에코세대의 자살률이 불과 10년 사이 5배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 연령집단 중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07년 이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 불량자 증가와 생활고, 취업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4]. 그러나 최근 들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에코세대의 취업과 자살생각 및 자살에 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으며 그나마 청년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정신건강, 특히 우울에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6,7,9,15-18].

취업과 정신건강 관련 연구에 있어서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주로 두 가지 가설이 제안되어 왔다. 하나는 실업이 정신건강수준을 낮춘다는 가설인 ‘노출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수준이 본래 낮은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있게 된다는 ‘선택가설’이다[7,19].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과 정신건강에 관련한 연구는 횡단연구가 아닌 종단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7,19].

일반적으로 자살은 자살행동, 자살시도, 자살생각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는데[20], 이 중 자살생각은 자살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로 ‘죽고 싶다’는 보편적 생각에서부터 자신이 정말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21]. 자살을 생각에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연속선으로 볼 때,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으며 자살생각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자살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2,23].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례가 적고 정보가 부족한 ‘완결된 자살사망’ 대신에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택하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종단연구를 실시한다. 우선, 취업과 미취업 경험이 자살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변화에 따른 자살생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 왔던 우울과 자살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서울복지패널 2009년도와 2010년도 가구원용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서울복지패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여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08년 11월 서울특별시 25개 구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와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표본을 3,000가구 및 7,000가구원으로 선정하여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665가구의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1차 본 조사를 지난 2009년에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2차 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패널 홈페이지(panel.welfare.seoul.kr)를 참조하면 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0년 기준 에코세대에 해당하는 만 18-31세 연령군에서 2009년과 2010년 지난 한 주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해 모두 응답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혼인상태에서 미혼이나 기혼이 아닌 기타 4명과 2010년도 조사에서 탈락한 응답자 33명을 제외한 882명을 최종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고용상태 변화

서울복지패널은 2009년과 2010년 조사에서 각각 지난 한 주간의 주된 경제활동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1차 조사는 2009년 3월에 시행되었고 2차 조사는 2010년 6월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 조사된 응답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1차 조사 시점의 취업·미취업 여부, 2차 조사 시점의 취업·미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상태 변화를 가정하였으며, 조사된 시점 이외의 고용상태 변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고용상태 변화를 각각 '취업-취업', '미취업-취업', '취업-미취업', '미취업-미취업'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2) 자살생각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있음/없음'의 이분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3) 우울

본 조사에는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Zung's Self Rating Depression Scale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문항에 포함하고 있다. 이 도구는 1-4점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총점은 20-80점이다. 대체로 20-49점을 정상, 50점 이상을 약간 또는 그 이상의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본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점 이상을 '우울감이 약간 또는 그 이상 집단'으로 정의하여 '우울감 없음'의 이분형 변수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 측정된 우울은 취업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로서 사용되었다.

4) 스트레스

서울복지패널조사는 개인의 스트레스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량화된 지표인 Perceived Stress Scale (PSS)을 한국어로 번안한 10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총점을 합산하여 총 10-50점으로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었다[25]. 본 연구는 2010년의 스트레스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5) 통제변수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취업과 미취업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요인들(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하였다. 가구소득은 하위 25%, 50%, 75%, 100%의 네 가지 구분을 각각 1분위(최하위 집단)에서 4분위(최상위 집단)로 나누었다. 우울과 자살생각에 완화요인으로 지목되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동일 시기(2010년)에 측정된 개인의 스트레스, 그리고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통제하였다. 서울복지패널에서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정량화된 지표인 PSS가 포함되어 있으며 10개의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총 10-50점으로 합산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distress 상태를 측정한다.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이에 포함된 항목은 '나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피한다', '나는 일을 결단성 있게 딱 잘라서 결정하는 편이다',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하는 편이다', '나는 자신감이 아주 많다', '나는 도전을 받을 때 더 잘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 없는 일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두려움이 많은 편이다', '나는 내가 가진 문제가 많아도 모두 해결할 것이다', '내가 아주 잘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한 편이다'이다. 측정은 1-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관계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나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나만 소외당하는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친구를 쉽게 사귈다'. 측정은 1-5점의 Likert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정신건강수준이 본래 낮은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게 된다는 '선택가설'을 통제하고자 2009년의 우울감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AS ver.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취업상태 변화가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을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포함된 종단분석 가중치가 사용되었다.

결 과

연구대상자 882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386명(45.66%), 여자가 496명(54.34%)이었으며, 혼인상태인 사람(218명, 25.73%)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664명, 74.27%)이 훨씬 더 많았다. 가구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인 하위 25% 이하(115명, 11.73%)에 비해 최상위 25% (305명, 35.85%)가 두 배 이상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groups: unweighted frequency and weighted proportion (unweighted n = 882)

Characteristic	Value	Depression* (%)	Suicide ideation* (%)
Sex			
Male	386 (45.66)	14.66	2.27
Female	496 (54.34)	20.36	4.54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664 (74.27)	17.95	3.25
Currently married	218 (25.73)	16.39	4.06
Household income			
1st percentile	115 (11.73)	23.26	6.35
2nd percentile	210 (23.76)	19.44	3.83
3rd percentile	252 (28.66)	17.23	1.76
4th percentile	305 (35.85)	14.7	3.45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chool graduation or less	186 (18.92)	26.82	5.05
College or more	696 (81.08)	15.65	3.09
Employment transitions			
Employed-employed	301 (35.53)	12.79	1.94
Unemployed-employed	89 (10.28)	10.61	6.29
Employed-unemployed	43 (5.1)	23.49	2.56
Unemployed-unemployed	449 (49.09)	10.69	3.89
Self-esteem	33.37 ± 4.70		
Social support	19.22 ± 1.60		
Perceived stress	6.79 ± 2.51		
Depression in 2009 [†]	1.22 ± 2.2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he dependent variables,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in 2010.
[†]Depression measured in the previous year was used as a control variable in this model.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에코세대의 특징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은 대학 재학 이상이 696명(81.08%)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에 속한 186명(18.9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고용변화는 취업-취업집단이 301명(35.53%), 미취업-취업이 89명(10.28%), 취업-미취업이 43명(43%), 미취업-미취업이 449명(49.09%)으로 두 개의 조사연도 모두 취업이거나 모두 미취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남자보다 여자에서 우울(20.36%)과 자살생각(4.54%)이 모두 높았다. 또한 기혼보다 미혼일 경우 우울감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17.95%), 자살생각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높았다(4.06%). 한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우울과 자살생각이 낮았는데,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에 우울과 자살생각이 모두 더 낮게 나타났다(각 15.65%, 3.09%).

Table 2를 살펴보면 취업에서 미취업상태로 변화한 집단에서 지속적인 취업상태에 있었던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있을 확률이 약 1.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미취업자들은 지속적인 취업자들에 비해 우울감이 높을 확률이 1.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또한 계속 취업이 된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1.39배 높았다. 한편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취업상태로 변화한 집단에서는 계속해서 취업이 되어 있는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무려 3.5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상태가 변한 집단이다. 이 집단의 현재 취업상태를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그리고 기

Table 2. Adjusted coefficients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unweighted n = 882)

Variable	Depression*		Suicide ideation*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Sex (male)				
Female	1.32	1.31-1.33	1.71	1.68-1.74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Currently married	0.79	0.78-0.80	1.48	1.45-1.50
Household income (1st percentile)				
2nd percentile	1.23	1.21-1.25	0.97	0.95-1.00
3rd percentile	1.13	1.11-1.14	0.38	0.37-0.39
4th percentile	1.02	1.00-1.03	1.03	1.01-1.06
Educational attainment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College or more	0.61	0.61-0.62	0.63	0.62-0.65
Employment transitions (employed-employed)				
Unemployed-employed	0.78	0.77-0.80	3.85	3.75-3.95
Employed-unemployed	1.49	1.46-1.51	0.83	0.79-0.87
Unemployed-unemployed	1.57	1.56-1.59	1.39	1.36-1.42
Self-esteem	0.90	0.90-0.90	0.92	0.92-0.92
Social support	0.86	0.86-0.86	0.91	0.91-0.92
Perceived stress	1.00	1.00-1.01	1.15	1.15-1.15
Depression in 2009 [†]	1.17	1.17-1.17	1.18	1.18-1.19

*The dependent variables,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were measured in 2010. [†]Depression measured in the previous year was used as a control variable in this model.

Table 3. Current employment status of 'unemployment-employed' group: unweighted frequency and weighted proportion (unweighted n = 89)

Employment status	Value
Permanent worker	52 (58.43)
Temporary worker	29 (32.58)
Other (self-employer or unpaid worker)	8 (8.9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타(자영업 또는 무급종사자)로 나누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된 사람들이 52명(58.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 취업이 된 사람들이 29명(32.58%), 기타 자영업자 또는 무급종사자인 경우가 8명(8.99%)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미취업-취업' 집단을 현재의 고용형태를 고려하여 자살생각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미취업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상태가 변화한 사람들보다 비정규직으로 변화한 사람들이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beta = 3.28, p = 0.07$).

고 찰

본 연구는 오늘날 청년에 해당하는 에코세대의 취업과 미취업 경험이 이들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경험 또는 지속적인 미취업상태는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관되게 미취업이 정서적인 우울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실업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취업자들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부합했다.

실질적으로 노동이 생존과 직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용상태와 우울감이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에의 위협 및 상실은 개인의 삶에 커다란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16].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코세대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한 집단이다. 그러나 실업은 이들에게서 경제적 독립, 자아실현의 기회, 소속감 등과 같은 요인들을 박탈함으로써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과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9]. 그래서 자신을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 또 소속이 없는 고립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이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9].

또한 실직은 우울감이 발생토록 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기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16]. 이는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의 이동이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다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6]. 또한 이러

Table 4. Adjusted coefficients of suicidal ideation in 'unemployed-employed' group (unweighted n = 882)

Variable	Suicidal ideation	
	β	p-value
Current employment status (permanent worker)		
Temporary worker	3.28	0.07
Other (i.e., self-employer or unpaid worker)	3.46	0.14
Sex (male)		
Female	0.66	0.60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Currently married	2.65	0.06
Household income (1st percentile)		
2nd percentile	-1.98	0.34
3rd percentile	0.15	0.93
4th percentile	0.94	0.61
Educational attainment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College or more	0.63	0.62
Self-esteem	0.92	0.92
Social support	0.24	0.58
Perceived stress	0.56	0.13
Depression in 2009	-0.36	0.19

한 변화는 생활의 손실, 사회적 관계 및 지위의 손실 등을 동반해 스트레스적인 생애사건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8,16,26]. 장기적인 실업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신건강이 더욱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7,16,27,28]. 실업으로 인해 청년들은 분노, 좌절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우선적으로 경험하고[9,29],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자립능력의 저하, 가족관계에서의 상호작용 회피,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9,30]. 따라서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동한 집단이나 지속적인 실업을 경험한 집단 모두에서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청년 실업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6,9,31,32]에서 청년시기는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업 정체감을 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실업은 성인 실업보다 더욱 큰 문제이며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 또한 성인에 비해 더 크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실업상태는 단순히 우울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살의 가능성을 높일 정도로 심각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매우 흥미롭게도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변화를 경험한 에코세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취업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취업 또는 실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취업상태를 단지 취업/실업으로 단순히 이분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질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3,8,16]. 실제로 많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정신건강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공통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16]. 특히 비정규직(임시직 또는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분노나 우울, 약물남용 그리고 자살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Nam [3]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술 연구들을 참고하여 고용불안을 정의했는데, 고용불안을 크게 '고용의 안정성(sta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실직의 어려움'과 '재취업의 두려움'이라 정의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일용직 또는 임시직과 같이 이름 그대로 실직의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미취업-취업'집단은 단지 비정규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상태가 변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실직의 어려움을 미리 경험하였고 현재의 불안정한 취업상태에서 재취업의 두려움 또한 매우 큰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7,16,27,28,33,34]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의 자살생각이 높은 것은 고용불안에 의한 것이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청년실업정책에 중요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턴제도와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늘리는 것은 표면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에코세대의 취업과 정신건강에 있어 궁극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인 실업과 이직문제를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년 취업에 있어 우선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서 이들의 실업이나 고용불안정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요인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무려 5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세대의 정신건강과 자살문제는 비단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에코세대의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세대가 앞으로 다른 인구집단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세대이동(중년에서 노년으로의 이동)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노년인구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이에 따른 연금문제 등과 같은 적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에코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집단이다[2]. 그러나 에코세대의 경우 이미 청년기에서부터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집단이 향후 중장년, 노년에 들어서면 발생하게 될 사회문제들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년기인 에코세대의 취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울복지패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는 고용변화는 설문이 진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의 고용상태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고용변화는 고려되지 않았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abyboomers and echo generation. Daejeon: Statistics Korea; 2012.
2. Song TM. Suicidal characteristics of babyboomers and echo generation in Sou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3.
3. Nam JR. Characteristics of unemployment among the youth and its implications. Seoul: Korean Labor Research institute; 2006.
4. Song TJ. Youth unemployment going on in 2007. LG Weekly News. 2001 Nov 14.
5. Lee JY. Strategy of preventive counselling for long-term unemployment. Seoul: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2011.
6. Lee AR, Lee JY, Kim KH. Research trends and intervention plans on youth unemployment in Korea from the preventive counselling perspective. Korea J Couns 2013;14(1):115-141.
7. Chang JY, Jang EY, Kim BS, Roh YH, Lee JY, Han JH. The longitudinal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Korean J Psychol 2004;23(2):121-144.
8. Dooley D, Prause J. The social costs of underemployment: inadequate employment as disguised unemploy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9. Im SY, Kim TH.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family support on depression of unemployed youths. J Fam Relat 2005;10(1):51-73.
1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Interne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9 [cited 2012 Oct 10]. Available from: <http://www.oecd.org/els/socialpoliciesanddata/societyataglan-2011oecd-social-indicators.htm>.
11. Jang YS. Health statistics and indicators in Korea. Health Welf Policy Forum 2011;179:17-28.
12. Ra CL, Lee CJ, Seo JY, Choi JH, You MS.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013; 30(1):1-11.
13. Im HS. 64.2% of job-seekers, experienced suicide attempt due to job-seeking stress. Yonhap News Agency. 2011 Apr 20.
14. Song TM, Jin DL, Song JY, An JY, Cho YH. A comparative analysis of suicide characteristics by age group in Korea. J Korea Soc Health Inform Stat 2013;38(1):122-142.
15. Kim SH, Lee SH, Cho YJ. Unemployed stress for the unemployed early adults. J Fam Relat 2011;16(1):19-43.
16. Park SH, Kim CY, Shin YJ.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changes on mental health. J Crit Soc Welf 2009;27:79-120.
17. Lee HK, Kim IK, Park YC. The psychological effect of economic depression on the 20's unemployed. Korean J Psychol Soc Issues 2000;6(2):87-101.
18. Chang JY, Jang EY, Shin HC. The long-term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on psychological distress. Korean J Psychol 2006;25(1):65-87.

19. Winefield AH. To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J Adolesc* 1997;20(3):237-241.
20. Sadock HS. Suicide. In: Sadock BJ, Sadock VA, editors. *Kaplan and Sadock'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7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0. pp. 2717-2731.
21. Dubow EF, Kausch DF, Blum MC, Reed J, Bush E.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 Clin Child Adolesc Psychol* 1989;18(2):158-166.
22. Harriss L, Hawton K. Suicidal intent in deliberate self-harm and the risk of suicide: the predictive power of the Suicide Intent Scale. *J Affect Disord* 2005;86(2-3):225-233.
23. Stefansson J, Nordstrom P, Jokinen J. Suicide Intent Scale in the prediction of suicide. *J Affect Disord* 2012;136(1-2):167-171.
24. Zung WW, Richards CB, Short MJ. Self-rating depression scale in an outpatient clinic. Further validation of the SDS. *Arch Gen Psychiatry* 1965;13(6):508-515.
25. Cohen S, Kamarck T, Mermelstein R.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 Health Soc Behav* 1983;24(4):385-396.
26. Jahoda M.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 Social-Psychology Analysis*. Vol. 1. CUP Archive, 1982.
27. Creed PA, Reynolds J. Economic deprivation, experiential deprivation and social loneliness in unemployed and employed youth. *J Community Appl Soc Psychol* 2001;11(3):167-178.
28. Murphy GC, Athanasou JA.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J Occup Organ Psychol* 1999;72(1):83-99.
29. Lee HK. *Psychological impact of economic depression*.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8.
30. Kim JK. *Psychological effect of economic crisis: unemployment stress transitions during the crisis: case study*. Seoul: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Handbook; 1998.
31. Eisenberg P, Lazarsfeld PF.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Psychol Bull* 1938;35(6):358-390.
32. Fryer 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youth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some central issues. *J Adolesc* 1997;20(3):333-342.
33. Cox T, Leka S, Ivanov I, Kortum E. Work, employment and mental health in Europe. *Work Stress* 2004;18(2):179-185.
34. Virtanen M, Kivimaki M, Joensuu M, Virtanen P, Elovainio M, Vahtera J. Temporary employment and health: a review. *Int J Epidemiol* 2005;34(3):610-622.